

이웃종교 RELIGION

“불교아동교육 목적은 불성 일깨우기”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와 아동교육’ 주제 춘계학술대회 열어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는 동국대 불교아동교육연구소 주관으로 ‘종교와 아동교육’ 주제를 다룬 2009년 춘계학술대회를 5월 22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톨릭, 원불교, 유교, 통일교, 대산사상 등 각 종교계 지식인들이 모여 현대 아동교육의 문제점을 분석, 종교계의 입장에서 새로운 아동교육의 이념과 방법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불교계의 아동교육 발제자로 나선 황옥자 교수(동국대)는 “어린이는 본래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성인과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불교아동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불교인의 인격을 닦아 지혜와 자비를 갖춘 바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있다”고 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에 바탕을 두어 불법의 지혜와 방편을 아동교육에 수용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가톨릭과 아동교육을 발표한 조성자 교수(가톨릭대)는 유아기에서부터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 몬테소리 교육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몬테소리는 어린이들의 생명을 영혼에 접화하기 위해서는 유아기에서부터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며 “종교적 민감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종교심을 흡수할 수 있도록 물리적, 지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오순 교수(원광대)는 “원불교의 영·유아관은 ‘하늘사람’으로 보고 영·유아가 하늘사람으로 자리하도록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이 원불교 유아교육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유교와 아동교육 발제를 맡은 이희재 교수(광주대)는 “유교적으로 볼 때 아동의 가르침의 가장 가까운 목표는 문자를 익히는 일이다. 문자교육이 어느 정도 달성되면 비로소 문자를 활용해 경전·예절 교육 등을 가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일 교수(선문대)는 “통일교 운동은 인류 문명이 기초가 되는 종교, 사상, 철학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부문에 대한 재검토로 나아가는다”며 “통일교의 교육은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삶에서 실천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어린이는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심정의 분위기에 젖어 몸으로 실천하며 느끼면서 심정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의 기본 규범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순자 교수(대진대)는 “대순진리회는 유·불·도의 고전, 동양종교뿐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독특하고 창조적인 종파”라며 “대순사상에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교육을 근본으로 특별히 성인과 아동을 구분해 교육하기보다 성인과 함께 공부했으며, 주로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 자체에서 통합적인 인격교육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종교 벽 넘어야 갈등 해결돼”

한국종교연합 10돌... 평화포럼 열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종교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창립된 한국종교연합(URI-Korea·이하 한종연)이 올해로 10돌을 맞았다.

한종연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창립 당시의 목표와 각 종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여러 종교인들과 평화세계를 이루하는 큰 꿈을 그려 보고자 기념식과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前 상임대표 진월 스님, 박남수 상임대표, 이세우 목사, 김숙희 수녀, 박경조 前 성공회 주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나은 기자

‘종교보도사진전’

원불교신문 창간 40주년

원불교신문은 창간 40주년을 기념해 ‘종교보도사진전’을 개최한다.

종교간 소통과 화합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가톨릭, 개신교, 민족종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의 이웃종교계가 참여한다.

한국종교언론인협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전라북도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6월 1-5일은 전라북도 도청에서, 6월 10-16일 서울불교중앙박물관 나무갤러리에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나은 기자

대형시설 잇따라 수탁 복지포교 ‘박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복지인프라 구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우, 이하 복지재단)이 수도권 중심지역과 신도시의 대형복지시설을 잇따라 수탁하면서 복지포교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복지재단은 5월 19일 수원시(시장 김용서)로 부터 국내최대의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했다.

영통복지관은 연면적 1만5042㎡의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복지관은 2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역 아동발달센터,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영통시니어클럽(노인재활시설) 등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복지관이다.

전국 120여 시설의 안정적 시설 운영 능력을 인정 받아 복지재단은 14년간 쌓아온 사회복지실천 현장 중심의 운영 노하우 및 조계종단의 다양한 복지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설운영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수원지역 불교복지의 거점도량인 수원사(주지 성관)가 맡기로 했다.

성관 스님은 운영지원사할 선정에 대해 “기존의 수원서호노인복지관과 함께 지역의 불교복지역량을 결집해 신도시 복지포교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복지를 통해 불교가 지역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복지재단은 구립송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위탁운영단체로 선정돼 서울 도심권에 불교계 노인요양 시설의 거점을 마련했다.

2009년 9월 준공예정인 송파노인전문요양시설은 1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치매지원센터, 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하고 있는 통합형 노인복지시설이다. 불광사회복지회가 운영지원사할로 선정돼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국내 최대의 지역 사회 복지시설인 영통종합사회 복지관.

지훈 스님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수도권에서도 불교계가 본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노인요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큰 의의”라고 강조했다.

두 차례의 연속적인 복지관 수탁 쾌거에 대해 대우 스님은 “불교계의 복지시설이 수도권 외곽에 위치하거나 송파와 같이 서울 도심에서는 전무한 지역도 있어 복지포교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2010년에 재단 창립 15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 복지시설들의 연속적인 수탁은 불교복지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조계종복지재단의 불사노력에 하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복지재단은 4월 20일 종교계 복지기관으로서 유일하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제환)가 한국 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성철)에 위탁해 진행하는 ‘사회복지사보수교육’의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복지재단은 5월 30일-11월 28일 6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800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bohjung@buddhapia.com

“국가 달라도 우리는 친구”

강화 전등사 이주민 초청잔치 열어

아시아 지역 이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축제를 즐기는 제4회 이주민 초청잔치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강화 전등사(주지 혜경)에서 5월 17일 열린 이주민 초청잔치에는 안덕수 강화군수, 조창희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아톰커널 네 팔 영상 등 내빈과 이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혜경 스님은 코리안 드림을 위해 왔다가 사방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묵념을 제안한 뒤, 전등사 신도회(회장 송종석) 초청으로 온 강화이주여성들의 친정 부모들을 반겼다.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국가는 다르지만 친구라는 이름으로 만났다”면서 “아시아는 친구 모두가 기억이 되는 소중한 친구”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스리랑카 미얀마 네 팔 태국 방글라데시 몽골 베트남 등 500여 명의 이주노동자와 이주 여성들은 △연꽃 만들기 △다도체험 등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몽골 개르 체험 △월남 참 나누기 등 다양한 체험과 이주민들의 공연을 함께 즐겼다.

한편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엔 불법체류 등 신분제약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양·한방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국음식을 체험하는 이주민 여성들.

송광사서 ‘희망’ 심는 템플스테이 열려

서울시 5월 27~29일

서울시는 5월 27~29일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에서 노숙인과 저소득층 재활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의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008년 서울시가 준비한 ‘희망의 인문학 강좌’의 큰 호응에 힘입은 것으로 노숙인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제1차 ‘희망의 템플스테이’에는 쉼터와 보호센터에서 머무는 노숙인 다수와 재활센터에서 일하는 저소득층 4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2박3일 동안 새벽예불·108배·참선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종교적 색채가 강조되지 않도록 예불 시간에는 선택적 명상과 가톨릭의 피정 등 이웃종교의 성장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어르신, 청소년과 마음으로 만나다

종로노인복지관서 진행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5~11월 7개월 간 세대통합프로그램 ‘청소년과 어르신이 하나되는 동감(同感)’을 진행한다.

5월 16일 첫 프로그램에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 22명과 청운중학교 학생 22명이 만나 상호 이해 및 공감에 대한 특강 및 음악을 이용한 공동체 활동으로 진행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어르신과 청소년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며 “매월 1회씩 모임을 가져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산사음악회와 함께하는 제2차 낙동강 수륙고혼 방생 천도법회

업장소! 극락왕생!
산사음악회와 함께하는 제2차 낙동강 수륙고혼 방생천도 법회는 전생 빛을 갖고 스스로 내생의 복을 짓는 참회와 축원의 법회에 동참하시어 스스로 자신을 닦고 조상과 자식의 복전을 일구는 정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일 시 : 2009년 5월 30일 (음, 5월 7일) 토요일
장 소 : 무심사
행사내용 :
• 1부 - 천도법회 (오전 10시) / 증명법사 : 도정스님
• 2부 - 산사음악회 (오후 5시)
영가 1위 5천원, 연등 1인 5천원
(동참계좌 : 농협 702058-51-003978 무심사)
☞ 찾아오시는 길
현풍 IC → 구지, 이남 → 객재우묘에서 2km 지점
기타 자세한 문익은 무심사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053)616-8080 / 016-9898-0108

대한불교조계종 무심사 무심스님 합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대암2리 듄말리

종도모집 안 내

대한불교 선밀종

밀로서 점수하고 선으로 돈수를 하며 대중불교를 지향하는 본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중진 간부스님 및 사부대중을 모집합니다

종단사업부 직원모집(대구지역)

경력, 웹디자인, 음료영업 관련업무 : 0명

식품사업부 주주 및 대리점 모집

국제 / 국내 특허제품 다수 보유, 건강식품 및 음료사업 유 경험자



(주)자운 식품사업부 문의 : 053)311-2675, 2676

“출판 사업부”에서는 출판을 원하시는 종도스님 및 사부대중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95-1번지 (2-3층)

大韓佛敎禪密宗 총무원 www.sunmiljong.or.kr

전화 053)311-2677 / 010-3134-8484 / FAX 053)311-2634